

경제

“광주은행 일괄매각 지역민 염원 무시”

광주상의·광은노조 등 정부방침에 강력 반발 “철회 안하면 지역단체·정치권 연대 총력투쟁”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의 우리은행과 광주·경남은행의 일괄매각 방침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광주상의와 광주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분회의에서 우리은행과 광주·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을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자위는 지난해 병행매각을 추진한 결과 절차가 복잡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컸다는 분석에 따라 지방은행을 분리하지 않고 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항토은행인 광주은행을 지역 상공인들의 힘으로 인수

하려고 분리매각을 요구해 왔던 광주상의 등 지역 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상의는 광주은행 인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관련기관에 광주은행 분리 매각을 건의하는 등 지역 자본에 의한 광주은행 인수 추진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왔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4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지난해 8월 ‘광주은행 출자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정·관·재계 인사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인수자금 확보를 위한 출연금 모금과 입찰 제안서 준비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

광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민영화가 실시 중

단되면서 활동을 멈췄지만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이 재개되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체제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자위의 일괄매각 방침 발표로 광주은행 인수가 사실상 물건간 것 아니냐며 침뚫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광주·전남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광주은행을 지역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해 분리매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괄매각 방침은 지방정책은 무시하고 업부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병행매각만이 우리금융자주의 다양한 입찰 참가자를 확보하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도 추구할

수 있고 유효경쟁 불성립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자본이 지방은행을 인수할 때 중소기업 육성, 지역민 금융권의 제공, 지역 고용 창출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광주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서 분리 매각해 지방금융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공자위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한편 경남은행 분리매각을 추진하는 경남도 등과 보조를 맞춰 지방은행의 분리매각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광주은행 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용안정과 자율경영권이 보장된 분리매각 민영화 방안을 제시하고, 관치금융 철폐와 매가뱅크 합병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주사 일괄매각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지역민의 금융권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지역민의 염원을 무시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맛에 맞는 결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역금융 중추기관으로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동안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고용안정과 자율경영권이 보장된 분리매각 민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은노조는 향후 민영화 방안 즉각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융노조, 지역단체, 정치권 등 연대를 통해 강력한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다른 금융지주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신은금융의 독점적 인수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이 불과하다”며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약속이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네시스, 프라다와 만나다 17일 오전 서울 청담동 '비온드 뮤지엄'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프라다' 신차발표회에서 모델들이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프라다의 디자인이 결합한 '제네시스 프라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수완지구 등 아파트 분양 '붐물'

6월 분양을 앞둔 전국의 아파트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포털 닷자아파트에 따르면 6월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총 61곳 3만1135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1만3028가구)보다 크게 늘었다.

이 중 지방 분양은 1만7354가구로 작년보다 6배 늘어나 '분양 붐물'을 주도했고, 수도권도 1만3781가구로 25%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광주 수완지구 등에서 분양이 대거 중이다.

/연합뉴스

매출·영업이익 증가...순이익은 감소

광주·전남 결산법인 올 1분기 실적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의 올 1분기 영업실적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2011 사업연도 1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3개사 중 연결재무제표 제출법인인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 2개사를 제외한 11개사의 매출액은 64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9%(1483억원) 증가했다.

또 영업이익은 지난해 427억원에서 440억원으로 2.95%(13억원) 늘었고, 순이익은 지난해 401억원에서 395억원으로 1.37%(6억원) 감소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기업(465개사)의 매출액 증가율(14.67%)보다 증가율은 높은 반면, 순이익(9.83%)은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

상장사의 영업실적이 증가한 것은 수출 호조와 내구재 중심의 민간소비 회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3.18% 포인트 높아진 69.93%를 기록, 전국평균(86.35%)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소폭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11개사 가운데 10개사가 흑자를 냈고 1개사는 적자를 보였다. 1분기 흑자로 전환된 기업은 보해양조였으며 적자 전환 기업은 동아에스테크였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8개사는 매출액이 8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46%(4억원) 증가했고 순이익은 -11억원으로 전년도 흑자(3억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영업이익도 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8.53%(1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5.15% 포인트 늘어난 51.94%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지만 여전히 전국평균(79.69%)보다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

대기업 8개사 중 3개사는 흑자, 5개사는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적자 전환 기업은 한남자기와 파루 2개사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무인전자세관 도입 관세청, 8월부터

관세청은 17일 무인전자세관 도입, 환적화물 관리 강화, 수출기업 해외 통관으로 해소 등 '무역역 1조 달러 시대의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오는 8월부터 수출인증자(AEO) 업체의 적정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에 의한 처리를 배제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자동처리를 할 계획이다.

수출인증자(AEO)는 국제규범에 따라 성실성과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해 세관에서 공인받은 업체를 말한다.

/연합뉴스

오용현 서광주세무서장 특강

中小 세미나 '생활속 세금 이야기'

오용현 서광주세무서장은 지난 17일 오전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전남 중소기업이(興)업종 조찬세미나'에 특별강사로 초청돼 '생활속의 세금이야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사진> 이날 강의에서 오용현 서장은 광주·전남 중소기업 각 부문 대표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지역 세원의 특성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추진 방안'과 전국 관세청 회의의 실전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들이 알고 싶어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사례를 들어 강의를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특히 고소득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따른 내용과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등 국제행정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졸 취업자 수 고졸 첫 추월

고용시장 역전... 대졸 경제활동인구 1천만명 넘어서

급속한 고학력화의 여파로 올해 들어 고용시장에서 대졸 취업자 수가 고졸을 추월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문대졸과 대학원졸을 포함한 대졸 취업자는 954만1천명으로 고졸 취업자(950만3000명)보다 3만8000

명 많았다. 대졸 취업자가 고졸보다 많아진 것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4월 기준으로 대졸자들의 고용률은 74.7%로 고졸(61.1%)보다 13.6%포인트 높다. 실업률은 대졸자(3.9%)가 고졸자(4.3%)보다 낮다.

/연합뉴스

1천2만9000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는 고졸(1574만2000명)이 대졸(1290만7000명)보다 283만5000명 더 많다. 그럼에도 대졸 취업자 수가 고졸을 역전한 것은 대졸자의 높은 고용률 때문이다.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1.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2.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3.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4.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순간 5·18 광로변)
5.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문화지구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H.P.011-601-5354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회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복빌, 대인동 소행사건내편)

주인직접거래

카페 / 전원주택지

화순이십곡리(계곡물)앞. 담)약3백평 (평당)20만원
광주에서 5분거리임

고흥바닷가 신축황토집

큰방3개 넓은 텃밭 300평
조망권최고 계곡물흐름
전세 5천만 3천만원

해수절임공장 임대

맑은바닷물 (김치공장도최적)
고흥바닷가 약100평
전세 1천만원

고흥-광주간 고속도로 공
시중 약50분거리임

고흥 대전리 해수욕장옆

매실, 유자밭 3천평
당)5만원
(편선,모델 부지 최적)

문의 ☎ 010-8200-5662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서구 매월동 준공업지역매매

▶대 지 : 263평, 신축초고53평, 사무실 26평
건폐율 60% 유통단지
▶매매가격 : 6억2천만원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높 이 : 8.9, 10.9m
▶호이스트 : 유, 유, 유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덕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